

## 시무식 신년사

경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사부대중께 호랑이해를 맞아 호랑이의 기상과 용맹으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은 부처님이 열반하신지 2554년이 되며, 서기로는 2010년입니다.

우리 종단의 중천조이신 보조국사께서 입적하신지 800년이 되고, 서울 사대문 안에 각황사라는 포교당이 세워져 도시 포교의 새 장을 연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일제에 강제병합되었던 때로 1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민족은 비통한 식민지 경험과 해방, 그리고 분단과 전쟁의 폐허를 지나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실현하여 금년에는 마침내 G20국가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천700년 역사의 한국불교는 서 있습니다.

우리 한국불교는 조선조 5백년간의 억불정책 아래 산중에서 시련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다 일제에 맞서면서

종단을 재건하였고, 해방 이후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봉암사 결사와 식민지 잔재를 청산한 정화운동을 하여 마침내 대한불교조계종이 출범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종단도 또한 내분과 갈등의 아픔이 생겨났고, 또한 이를 극복하려는 열망과 노력도 치열하였습니다.

작년 10월 22일 출범한 제33대 종단은 바로 이러한 종도의 여망과 불교사적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종단을 중흥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으로 시대중생들의

갈등과 괴로움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33대 종단은 선거 과정

에서의 공약과 지난 집행부의과제, 그리고, 각 원·부서의 의견을 집약하여 앞으로 4년 동안의 발원과 진로를 담은 ‘종단 발전 4개년 계획’을 1월 12일 발표할 것입니다.

오늘 33대 종단의 첫 해가 시작되는 시무식을 맞아 저는 종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통과 화합이 필요합니다.

종무원 간의 소통과 화합, 종단 사부대중 사이의 소통과 화합 더 나아가 불교와 사회 사이의 소통과 화합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승가’를 ‘화합대중’이라 했습니다. 출가와 재가, 부서와 직급, 중앙과 지방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서로 하심하고 소통하여 우리 종단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구현하는 지혜와 자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종단이 스스로 소통과 화합의 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대립과 갈등의 한국사회와 인류세계를 변화시키는 선도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신심과 공심과 원력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제방을 순례할 때 원로대덕스님들로부터 들은 한결 같은 이야기가 신심, 공심, 원력입니다.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 사바세계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다면, 대립에 휩쓸리고 갈등에 무너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어떤 시련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 어떤 분열과 대립의 상황에서도 모두를 아우르고 포용하면서 조직의 공통된 발전을 도모할 공심과 원력을 가져 주십시오.

셋째, 종단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임제선사의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서있는 곳이 모두 진리의 세계다”는 “수처작주 입처개진”의 가르침 그대로

입니다.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스스로 그 일과 조직에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맡은 자기 일에서 주인이고, 종단의 대표입니다. 우리 종단은 일반 회사나 직장,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세계에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수행하고 실천하는 종교조직입니다. 우리 종단의 구성원들은 누구나 불교 종단의 존재 가치를 바로 알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그냥 월급쟁이로만 근무한다면 종단도 어려워지고 본인도 불행한 생활이 될 것입니다. 종단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종무원들이 소통과 화합하면서 신심과 공심과 원력을 가지고 주인의식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면, 또한, 제33대 종단 4년을 지낸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4년 동안 신바람이 나서 행복감도 깊어질 것이고 종단도 달라질 것이며,

결국, 한국불교는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으로 여러분이 신명나고 활기찬 종단 생활을 하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맞게 살아가는 종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경인년 새 아침을 맞아 다시 한 번 종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아울러 “소통과 화합으로 한국불교의 새시대를 열어가자”는 발원으로 새해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4년 1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